

건설 불황에 청년 일자리도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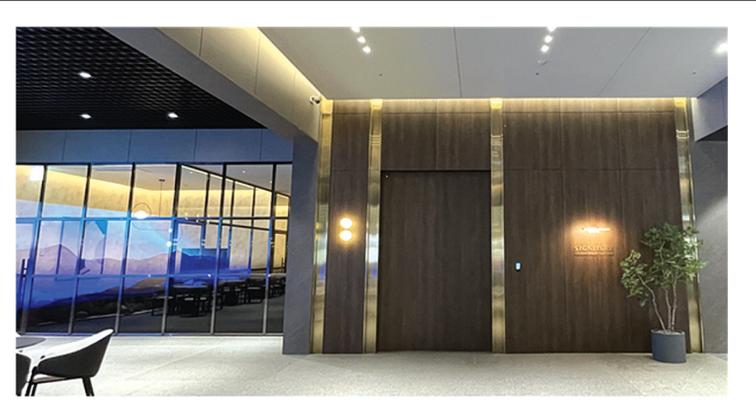
지난달 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 1년전 비해 40% 가까이 줄어 전체 청년 취업자 감소율보다 6배 이상 높아...모든 연령대서 감소

지난달 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용직 일자리는 4단계 넘게 줄어들면서 10단계 아래로 떨어졌다. 건설업 불황의 여파가 고용시장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고용 취약 계층'인 청년층이 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분야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0만 5000명으로 10만명에 '턱걸이'했다. 16만 6000명이었던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36.6%(6만 1000명) 감소한 수치다.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2014년 이래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같은 기간 전체 청년층 취업자 감소율(5.7%)에 비해 6배 넘게 높았다.

건설업 분야 청년층 취업자는 지난해 3월 -4.1%를 시작으로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고 있다. 5월부터는 감소율이 두 자릿수로 커졌고, 지난 달에는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취업자 감소의 주된 원인은 건설업 불황이 꼽힌다. 작년부터 계속된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 1000명으로 2017년 1월(188만 9000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6만 9000명 줄었는데, 이는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이런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는 청년층뿐만 아

니라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작년부터 감소했다. 다만 감소율은 청년층(-36.6%)이 30대(-1.9%), 40대(-7.2%), 50대(-10.7%)보다 훨씬 높았다. 업황 부진으로 인해 인력 수요가 감소하고,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면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건설경기 부진 등 영향이 겹치면서 건설업 분야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며 "특히 청년층은 건설업 취업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년층 건설업 취업자는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청년층 건설업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1월 12만 4000명에서 지난달 7만 8000명으로 4만 6000명가량 줄었다. 같은 기간 임시직 근로자는 8000명, 일용직 근로자는 1만명가량 감소했다. '나 홀로 사장님'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4000명 늘었다. /연합뉴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 최고급 편의·휴식공간 '멤버십 라운지' 오픈

계약자 대상 멤버십 카드도 발급

광주시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지역 최초로 계약자들에게 최상급 편의·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멤버십 라운지'를 오픈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에 마련된 '멤버십 라운지'는 계약자들이 분양 상담 외에도 언제든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편의 및 휴식 공간이다. 모노톤 베이스에 다크한 톤의 우드를 포인트로 사용해 고급스러운 감성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경과 조명을 차별화해 개인 공간 같이 편안하면서도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멤버십 라운지'는 멤버십 카드도 발급받은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계약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향후 모든 계약자들에게 멤버십카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 발급할 계획이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모델하우스는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154에 있으며, 아파트 입주는 2027년 8월 예정이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측은 '멤버십

라운지' 오픈과 함께 유상옵션 계약도 진행 중이다. 일반 분양 세대의 유상옵션 계약은 24일까지 실시한다. 3월 7일부터는 민간 임대 세대 유상옵션 계약을 별도로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관계자는 "이번 '멤버십 라운지'는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계약자들을 위한 문화 및 강연 프로그램인 '시그니처 멤버십'에 이은 두 번째 프로젝트, 지역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아파트에 거주할 예비 입주자들의 편의와 자부심 향상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다른 아파트에선 접할 수 없는 고품격 차별화한 혜택을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현재 일부 세대를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하고 있다.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에 조성되며, 지하 3층-지상 28층 총 39개 동, 전용면적 84-233㎡, 총 2772세대로 이 중 2364세대가 일반 분양이다. 최근 분양전환형 하이엔드 임대 전용 84㎡ 408세대는 높은 관심 속에 100% 완판하는 흥행 기록을 세웠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의 일상, 시베리아 거쳐 유라시아 확장 꿈만은 아니다"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 김현국 탐험가 초청 강연



"우리의 일상이 광주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탐험가로서 길을 개척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세계 최초로 모터사이클을 이용해 시베리아를 단독 횡단하고, 유라시아 대륙을 6차례 횡단한 김현국 탐험가가 지난 21일 광주경총장자초점포럼(광주경총) 제 167회 금요조찬포럼 강연에 나섰다. <사진> 이날 김 탐험가는 '탐험가의 탄생,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모'를 주제로, 본인이 탐험가로서 여행을 시작했던 지난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5년 가량의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풀어냈다. 강연에 앞서 김 탐험가는 여행을 '서로 다름과의 만남'이라고 먼저 정의했다. 그는 본인이 겪은 여행을 통해 만난 수많은 인연들을 예로 들며 "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권과 만나고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전쟁 등이 팽배한 현재의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의 첫 해외여행이었던 일본과 인도, 시베리아 등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구체적으로는 모스크바 붉은 광장의 사업 아이템 발굴 등을 설명하

고 러시아에서 새로운 삶 사업 기회를 맞았던 경험 등을 소개했다. 그는 삶 사업을 통해 경제적 여건을 마련, 지난 2001년 'N.실크로드 대장정' 계획을 세웠지만 9.11사태 이후 본인의 꿈이 좌절했던 경험 역시 공유했다. 그는 큰 좌절로 인해 13년여 가량 활동을 중지했지만, 지난 201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암스테르담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루트 자료와 작업인 '트랜스 유라시아 시리즈'를 반복했다. 김 탐험가는 "이같은 반복 작업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길을 대중화하고자 한다"며 "우리나라가 분단된 상황이지만, 언젠가 아바 차를 타고 바이칼 호수에 가고 청년들이 시베리아를 횡단해 발트해에서 윈드서핑을 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말했다. /글: 사진·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GICON 지원 사업 제작

광주FC 다큐 '엘로 스피릿' 쿠팡플레이에 독점 공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지난 20일 광주FC 다큐멘터리인 '2024 엘로 스피릿'을 쿠팡플레이에 독점 공개했다. '엘로 스피릿'은 GICON의 OTT플랫폼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로, 광주FC의 'K리그',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예선', '코리아컵' 등 시즌 전 경기를 밀착 취재해 선수단의 스토리와 구단 안팎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총 9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 ▲울산·전북·서울과의 주요 경기 ▲엄지성 선수의 EFL 이적 스토리 ▲구단의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ACL) 도전 ▲1부 리그 잔류 등이 있다. 특히 이경호 광주FC 감독의 라커룸 스피치 및 소속 선수들의 솔직한 인터뷰를 통해 몰입감 있는 이야기를 담았다. '엘로 스피릿'은 1년여 동안 제작됐으며, 지난 20일부터 매주 3편씩 3주동안 쿠팡플레이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유튜브 채널 '광주 축구'에서는 선공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GICON은 향후 다국어 자막을 추가하고, 영화로 제작해 국내외 영화계 노출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지난해 2024 시즌 광주 FC의 활약을 담은 OTT제작 콘텐츠와 같이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광주만의 콘텐츠를 알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엘로 스피릿'은 GICON의 지원사업인 '광주온에어스테이션'에서 후반 작업이 진행됐으며, 선공개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광주 축구'는 2024년 K리그 시상식에서 'K-크리에이터 골드 플레이어'를 수상하기도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한미 비즈니스의 밤' 참석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조현상(가운데) HS효성 부회장이 지난 19일 미국 의회 도서관의 토마스 제퍼슨 빌딩 그레이트홀에서 개최한 '한미 비즈니스의 밤'에서 조현동 주미대사(왼쪽), 옛 머레이 미국 APEC 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 부회장은 23일부터 25일까지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ABAC 회의를 의장으로서 주재하기 위해 호주로 떠난다. <HS효성 제공>

전남정보문화진흥원 메타버스지원 등 '우수'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 (나주, 순천)와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센터' (나주)가 2024년도 사업 평가에서 나란히 '우수' 등급을 받았다. 23일 진흥원에 따르면 전남 메타버스지원센터(나주, 순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4년 메타버스지원센터'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2020년 순천과 나주에 설립된 이 센터는 확장현실(XR) 융합 콘텐츠 개발, 메타버스 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역

내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다양한 성과를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 나주 거점은 상용화 실증 장비를 활용해 기업의 성장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순천 거점은 전문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및 메타버스 체험 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등 메타버스 교육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서남권 메타버스 허브센터' (나주)는 첫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은행 광주 4개구 3억5000만원 특별출연

지역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광주은행이 지난 21일 광주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4개 자치구에 3억5000만원을 특별출연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출연은 최근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지역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은행은 이를 위해 4개 자치구와 각각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출연액의 27배에 달하는 96억10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별다른 담보 없이 금융기관과 자치구청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산용보증재단이 보증지원하는 제도다. 광주은행은 지난 18일 북구에 5000만원을 출연, 이를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8억5000만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 북구청은 5.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동구에 5000만원을 특별출연해, 광주신용보증재단의 12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게 됐다. 동구청 역시 5.5%의 이차보

전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21일 남구에는 1억원을 특별출연했으며, 광주신용보증재단은 33억6000만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남구청은 4.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광주시 동구, 서구, 남구 특례보증 대출은 모두 각 자치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다. 마지막으로 오는 24일에는 서구 소상공인들을 위해 1억5000만원을 특별출연할 계획이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42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서구청은 최대 5.0%(고신용자 4.0%-중저신용자 5.0%)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최대 5년 지원한다. 고별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이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기업 지원 주요 사업 설명회

19일 무안, 20일 순천, 25일 나주

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TP)가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지난 19일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무안), 20일 전남테크노파크 본원(순천)에서 각각 개최했다. <사진> 오는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나주)에서 마지막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중소·중견기업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해 올해 주요사업의 방향과 사업추진 절차 안 내 및 질의응답 시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TP는 ▲기술개발 및 장비지원 ▲사업화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일자리 연계지원 ▲지식재산 지원 ▲사·도 지원사업 등을 설명한 뒤 기업별 현장 상담도 실시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테크노파크(www.jntp.or.kr) 홈페이지의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전남테크노파크 데이터

지원 지역기업 혁신성장 플랫폼(data.jntp.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로도복권 (제 116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7	13	18	36	39	45	19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509,359,875	12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9,746,664	84
3	5개 숫자일치				1,580,202	3,176
4	4개 숫자일치				50,000	160,611
5	3개 숫자일치				5,000	2,681,692